



남부소방 노인취약시설 방역 지원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남구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 21개소를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북카페 지원금 취약계층 자활참여자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 기대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본부장 신윤오)는 24일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전풍자)를 찾아 북카페(따사로움)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북카페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차상위 자활근로자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지원금은 북카페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자활참여자(8명)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자립지원 교육을 통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차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관계자는 “여수발전본부 직원들의 카페 이용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역시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코로나 극복 성금 500만원 기탁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4일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선문규 이사장과 원성준 상무, 김상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코로나19’ 극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제공할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위생

용품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다. 선문규 이사장은 “코로나19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힘을 보태고자 나눔에 참여하게 됐다”며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균 사무처장은 “전달해주신 성금이 전남지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찬 기자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 결론** ▲고 정해철·이인자씨 장남 근영군, 안봉일(완도 군청 기획예산담당관)·김영자(완도 교보생명 매니저)씨 장녀 하림양=4월19일(일) 낮 12시 광주 북구 문흥동 까사디 루체 3층 안필로홀. 피로연(신부측) 4월 9일(목) 오전11시 완도를 해변공원로 124번길 26, 수협회센터 2층(061-554-5510).
- ▲이선유씨 차남 박기훈군, 백운화·이정희(금정전통장류농업회사법인 대표)씨 장녀 백서영양=28일(토) 오후 2시 30분 광주 상무지구 S타워웨딩홀 3층 메리골드홀.
- 모집** ▲북구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지역으로 전문의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주치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이죠”

정영오 전 함평군 기획감사실장

공직경험 담은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발간 퇴임 후 청렴강사 활동...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연구

“후배 공직자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과 청렴을 이어받아 올바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지역관가에서 전배가 굵은 퇴직 공무원이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청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74년 함평군청에 공직에 입문해 2015년 기획감사실장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직한 정영오씨(66)가 주인공. 정 전 실장은 최근 ‘목민심서, 지방자치

를 비추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지난 2월에 출간된 책은 지방자치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75년 9급 공채로 함평군청에 몸담은 정 전 실장은 문화 공보실, 기획실, 행정과, 총무과 등 균형 주무부서를 두루 거친 행정의 달인이었다. 정년 후에는 저자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강사로 전국 공공기관 등을 오가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정년 후 그간 경험했던 행정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싶어 목



포대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했고, 학문을 넓히는 과정에서 공직윤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후 ‘공무

원 행동강령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대한 논문을 작성, 지난 2017년 행정학박사를 수료했다.

정 전 실장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청렴이라는 신념으로 공직생활을 해왔다”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와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산의 목민심서가 조선의 개조를 바라는 심서로 19세기말 민중들의 저항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인으로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현실을 알아야 하고, 실무자인 직업공무원들 또한 유념했으면 하는 마음에 보기에 쉽게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행정에 있다보면 자기사람을 심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 마련이다”며 “공직자들이 올바른 행정을 펼친다면 지방자치는 나날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코레일 광주역 백형미 역무팀장 노숙자 설득 ‘가족 품으로’ 훈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 광주역이 방역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감염 예방에도 앞장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24일 광주역에 따르면 최근 감염 우려가 큰 병약한 노숙자를 발견한 백형미 역무팀장이 끈질기게 설득 끝에 가족들과 연결해 귀가 조치했다.

지난 몇 달간 광주역에서 노숙하던 알코올 중독자를 주시하고 있던 박 팀장은 이날 이 노숙자가 객혈이 섞인 기침을 하는 것을 목격,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귀가를 권유했다. 박 팀장은 이 노숙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손찌꺼기까지 당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끈질기게 설득해 가족 연락처를 알아내 집으로 돌려보냈다.

백형미 역무팀장은 매일 2회 이상 역사



방역을 맡고 있으며接客시설인 화장실, 수유방, 맞이방 등에 손소독제 비치, 개인 위생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감염 우려가 큰 병약한 노숙자를 설득시켜 귀가 조치하면서 코로나 극복의 숭선 수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광주역 관계자는 “정부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가 소멸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 더욱 안전한 코레일 광주역을 만들겠다”며 “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수협 전남본부 코로나 극복 헌혈 봉사

수협 전남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해 헌혈’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수협은행 전남지역금융본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

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이준서 수협 전남본부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됐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도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김치타운, 대구에 배추김치 1톤 기부

정후선 대표 “대구시민 코로나 극복 도움되길”

김치제조업체인 ㈜김치타운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위해 배추김치 1,000kg을 기부했다.

사회적기업 ㈜김치타운은 최근 광주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마련한 여러 지원물품과 함께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에 김치를 전달했다.

㈜김치타운 정후선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중 이번 김치 전달을 계획했다.

정후선 대표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단어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사회적 우울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김치타운이 대구시민들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 대구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치타운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HACCP과 ISO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명실공히 광주시를 대표하는 자부심 강한 김치제조업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백양사 고불매 만개...산사 봄 정취 가득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우리나라 4대 매화이자 호남 5매로 불리는 장성 백양사 고불매가 만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양사 고불매(천연기념물 제486호)는 수령이 350년으로 강릉 오죽헌의 울곡매(484호), 화양사 김장전 앞 백매(485호), 선암사 선암매(488호)와 더불어 국내에 4그루 밖에 없는 천연기념물 매화 중 하나로, 흥매화로는 유일하다. 또 전남대 대명매, 담양 지실마을 계당매 등과 더불어 호남 5매로도 통한다. 단 한 그루에 불과하지



만 그 향기가 은은하고 매혹적이어서 백양사 경관을 가득 채울 정도다. 한상식 행정과장은 “이번주 많은 탐방객이 백양사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전일용 기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지지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맞춤형정신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
-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 (실버에 한함)011-9602-0001.
-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격려를 위한 혼성합창단모집 062-675-5955.
- ▲사랑아들봉사사업단=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파견사업진행, 대상 서구구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 351-3029,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기초반·초등반·중등반·영어초반·한문·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